



Archdiocese of Vancouver  
ARCHBISHOP'S OFFICE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밴쿠버 대교구의 모든 신자분들께 이 편지를 쓰지만,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성추행으로 인해 아동들이나 약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해야 했던 피해자 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저희는 교구 내 피해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고통을 조사하였고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유감의 표현도 이미 일어난 일들의 끔찍함을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당한 잘못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 육체와 영혼의 유린, 교회에 대한 배신감과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고통보다 교회의 명예를 우선시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죄송하고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아동과 약자들에게 가해진 성추행의 잔혹함은 이미 이 사회에 만연된 비극이지만, 특히 신자들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제가 저질렀을 경우 파생되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다루는데 있어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게을리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들에게 수치감, 혼란, 죄책감, 신앙의 손실을 가져오고 평생 고통스러운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밴쿠버 대교구 내 사목현장에서 성추행의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건을 제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의 정신적, 영적 안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지역 교회가 성추행 피해자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수년간 있어왔던 방침과 절차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노력들은 우리 모두의 깊고 지속적인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결의에 대한 첫 조치로 저는 2018년 10월에 '성직자 성추행 사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게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직자의 성추행 사례 조사, 이와 관련된 교구의 방침, 관행,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불충분한 부분 발견, 그리고 개선을 위한 권고"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온갖 열성을 다해 헌신해 주신 13명의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커다란 감사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고,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성추행 피해자 4명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9개월간 이들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례 조사 임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저에게 지난 7월 중순 31가지 권고 사항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권고 사항들은 수정하지 않고 문서 그대로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저에게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고, 은폐를 절대방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피해자,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의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근절하고 복음선포라는 선교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추행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반드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행 실무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단은 대응책들을 작성하고 각 대응책에 관련된 실제적인 세부사항들을 실행에 옮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권고 사항들의 일부는 이미 이행되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것입니다. 일부는 실행 이전에 더 많은 시간과 숙고가 필요 합니다. 분명히 많은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교구의 각오와 의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권고 사항과 대응책을 주의 깊게 읽으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치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구성원 한명이 겪는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추행이라는 재앙의 척결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모 p 이신 성교회는 특별히 아동들과 약자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 *J. Michael Miller OSB*

✠ 마이클 밀러

밴쿠버 대교구 대주교

*Translation by Reverend Paul Goo, Vocations Director, Archdiocese of Vancouver,  
Deacon Simon Moon, and Judy Chang*